

“꺾이지 않는 기세로 전북발전 가속”

김관영 도지사, “올해 말까지 새만금 예산 복원·특자도법 개정안 통과 중요… 반드시 성과 거둬야”

김관영 도지사가 지난 6일 간부회의에서 “500만 전북인이 꺾이지 않는 도민의 기세로 전북발전을 가속하자”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추석 명절동안 민생이 힘겹고 새만금 예산으로 많은 분들이 가슴 아파하고 있음을 느꼈다”면서, “우리가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전북경제를 살리는 노력에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이어 “500만 전북인이 응원하고 있으므로 새로운 희망이 있다”, “그간 추진해 온 기업유치와 이차전지 특화단지 후속조치 등의 속도를 높여 도민의 기세가 꺾이지 않도록 도전정성의 자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민생경제 활성화사업은 차질없이 추진하자”고 밝혔다.

세로 나아가자”고 간부공무원을 독려했다.

김관영 지사는 내년도 전북도 재정상황이 매우 어려운 상황임으로, “불요불급한 지출은 줄이고

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면서, 선제적인 안전조치 이행을 지시했다. 추가로 산불예방 주민계도

아울러 공무수행 중 급환으로 돌아

음을 언급하며 도의회와의 적극적인 소통 강화를 주문했다.

아울러 오는 24일 전북도청에서 열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를 전북의 미래와 새만금 예산복원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전북도는 올해 말까지 새만금 예산복원과 특자도법 개정안 통과가 중요하다”면서 “반드시 성과를 거둬 내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맞춰 도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새롭게 거듭나는 전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려야”고 덧붙였다.

/김재훈기자

민주 도당 탄소중립위 발대식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한병도 국회의원, 익산) 탄소중립위원회(공동위원장 한정수 공동위원장 장정수)가 발대식을 갖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 활동에 돌입했다.

9일 전북도당에 따르면 도당은 지난 6일 오후 4시, 도당 대회의실에서 임성진 이종희 한정수 공동위원장과 장정수 공동위원장의 인사 말씀과 부위원장 장정수의 임명장 수여로 이어졌다.

이날 행사는 김경호경남 김해를 국회의원) 중앙당 전국 탄소중립위원장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도당위원장의 영상 축사와 임성진·이종희·한정수 공동위원장의 인사 말씀과 부위원장 장정수의 임명장 수여로 이어졌다.

도당은 이번 발대식을 통해 전북지역 탄소중립 실천을 정책 개발과 탄소중립 생활속 실천 시민홍보 등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 활동을 다짐했다.

한정수 전북도당 탄소중립 공동위원장은 “탄소중립은 인류의 생존문제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문제로 탄소중립은 신과의 싸움이지 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다”며 “그래서 지금 당장(RIGHT NOW) 시작하고 실천해야 한다며,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14개 시군과 전북특별자치도의 성장동력을 만드는 계기도 마련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 지방시대 실현” 지난 6일 전북도청 종합상황실에서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지방시대 위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도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북특자도 도시브랜드 전략 방향 모색

도·토론회 열고 의회·언론·경제·문화·학계 등 계층별 의견 수렴

전북도는 지난 6일 도의회 의원총회 의실에서 전북특별자치도 도시브랜드 전략과 상징물 개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관영 도지사

역사와 문화 정체성을 주제로 발제하여 본격적인 토론회가 시작되

토론회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전북도는 의회, 언론, 경제, 문화, 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 수렴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의 비전과 발전 방향 전북의 역사·문화적 정체성 등 다양한 요소를 조화롭게 아우를 수 있는 도시브랜드 개발을 도모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도민 여러분의 귀한 의견 하나하나가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를 밝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전북민의 정체성과 독창성 미래 비전과 잠재력을 담아 1등 도시브랜드를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김재훈기자



민주 전주병 지역위, 강서구청장 진교훈 후보 지원 유세 나서

더불어민주당 전주병 지역위원회(위원장 김성주 국회의원)는 지난 5일 서 울 강서구청장 재보궐 선거에 출마한 진교훈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섰다.

이날 지원 유세에는 김성주 국회의원을 주축으로 강동화 도의원 박선진, 이병하, 남관우, 최지은 윤혜정, 이보순 전주시의원 등이 참여했다.

전주 병 지원유세단은 “진교훈 후보는 흠집 없는 후보, 깨끗하고 정직한 후보로 몇 개월 전까지 범외자였다가 대통령의 시면·복권 날발로 다시 나온 국민 후보와 다르다”며 “투표를 통해 진교훈 후보에게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지원유세단은 강서구 목동사거리와 남부시장을 돌며 강서구민들에게 진교훈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김재훈 기자

매장문화재 발굴 허용... ‘백두대간법’ 개정안 국회 통과

민주 안호영 의원 대표발의... ‘문화유산 보존·관리 등 이바지’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원주·진안·무주·장수)이 대표 발의한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백두대간법)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안호영 의원은 “백두대간법 개정안은 전북 장수군 등 백두대간 보호지역에서 학술연구와 유적 정비 목적으로 매장된 문화재를 발굴할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멸실·훼손된 매장문화재가 보존·관리될 수 있도록 근거법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은 문화재 복원, 보수, 이전

및 보존관리를 위한 시설 등의 설치에 허용하고 있지만, 문화재 발굴 행위는 제한하여 매장문화재에 관한 보호나 조사 등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었다.

장수군 등 백두대간 보호지역 내에는 가야문화 등 고대사회 매장문화재와 산성·봉수 등 유적들이 보존되어

있고, 이들 매장문화재에 대한 연구나 유적 정비사업 또는 멸실·훼손 문화재에 대한 보존과 관리를 위해 발굴조사 필요성이 증대해도 현행법상 법적 규정이 없어 문화재 발굴조사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안호영 의원은 “지난 6월 발의된 백두대간법”이 4개월 만에 통과된 것은 여야 의원들이 법 개정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공감해 준 것이라 감사하다”며 “백두대간 보호지역 내에서 학술연구와 유적 정비 목적의 발굴조사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소관 부처가 조속히 후속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수=관훈 기자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등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민주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시·고창군 국회 농해수위)이 대표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윤준병 의원이 지난해 9월 대표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

됐다. 본 개정안은 소규모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중간소음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상당 및 진단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중간소음 개선에 위한 측정과 진단 및 저감제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융자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또한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통과되는 결실을 맺었다.

/정읍=김대환기자

온라인상에서 검색 한번에 수입금지 품목 농산물 눈앞

日 후쿠시마현 제외 유일한 쌀 수입금지 대상지 미야기현 쌀, 쿠팡 등서 손쉽게 온라인 구매 가능



윤준병 의원 “구멍 뚫린 농산물 수입금지 민낯 드러내라”

현재 일본 후쿠시마 현을 비롯한 인근 15개 현의 27개 농산물을 수입 금지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온라인 상에서 검색 한 번에 수입금지 품목인 농산물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우리나라의 구멍 뚫린 농산물 수입금지 조치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일본 각 현별 농산물 수입금지 현황’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일본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8개 현의 모든 수산물과 8개 현을 포함한 인근 15개 현의 27개 농산물을 대상으로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농산물 품목 중 쌀은 원전 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현을 제외하고는 오직 미야기현만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미야기현에서 생산되는 쌀은 지난 2013년 3월 20일부터 수입중단 대상에 포함됐다.

그런데 윤준병 의원은 우리나라에 수입이 금지된 미야기현 쌀이 온라인상에서 검색 한 번에 바로 구매가 가능한 것을 확인했다. 온라인상의 주요 이커머스 사이트에서 ‘미야기현 쌀’만 검색해도

바로 미야기현 쌀을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된 것이다.

실제로 쿠팡과 네이버쇼핑, 11번가와 옥션, G마켓 등 온라인을 통해 일본 미야기현 쌀을 조회하면 여러 종류의 판매 상품이 조회되고, 또한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일본산 농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사실상 허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윤준병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투기를 사실상 용인하고도, 후쿠시마현을 비롯한 인근 8개 현의 농산물 수입금지 조치는 변함없이, 예외없이 적용될 것이라 큰소리 치고 있지만 정작 온라인상에서 수입금지 품목인 농산물을 검색 한 번에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구멍 뚫린 일본산 농산물 수입금지의 민낯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실제 일본 미야기현은 원전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현을 제외하면 유일하게 쌀을 수입금지한 지역이지만, 쿠팡·네이버쇼핑·11번가·옥션·G마켓 등 주요 이커머스업체 사이트에서 미야기현 쌀을 검색하고 구매하는 데 어떠한 방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무방비로 들어오는 일본산 수입금지 농산물로부터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정부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읍=김대환기자

“원산지관리시스템 해킹 시도만 지난 5년간 20만1018건에 달해”

정보보호 제품 노후화 심각, 민주 한병도 의원 ‘장비 최신화 인력 충원 사이버 공격 대처를’



(6만4,340건), 중국(3만 2,888건), 네덜란드(8,905건), 러시아(6,822건) 순이었다. 국내와 미국발 해킹시도가 전체의 64.8%에 달했다.

원산지관리시스템 해킹시도가 2019년 1만8,612건에서 2023년 상반기 6만 9,102건으로 4년새 약 3배 급증했는데, 정보보호 장비 노후화는 극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이 한국 원산지정보원으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원산지정보원에 대한 해킹 시도는 2019년 1만8,612건에서 2020년 3만4,775건, 2021년 3만5,182건, 2022년 4만7,647건, 2023년 상반기 6만9,102건으로 매년 급증했다.

유형별로는 사이트 해킹을 시도하는 웹접근시도가 19만 6,449건으로 가장 많았고, 웹/바이러스(4,567건)가 뒤를 이었다.

국가별로는 국내(6만 5,983건), 미국

이에 반해, 원산지관리시스템 정보보호 제품의 노후화는 심각한 수준이었다.

각 장비별 내용연수는 5년인데, 외부 방화벽과 DDoS(8년), VPN과 메일보안 솔루션(11년), IDS/IPS(12년), WAF(13년) 등 다수의 제품이 내용연수를 훌쩍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 의원은 “노후 전산장비가 많다보니 타 기관보다 해킹 시도에 취약할 것으로 우려된다”라고 지적하며, “전산장비를 최신화하고, 정보보호 인력을 충원해 사이버 공격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익산=이재훈기자

“누구도 보호받지 못하는 보호출산제 반대”

진보당 강성희 의원



진보당 강성희 의원(전주)은 지난 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반대토론 발언을 통해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를 위한 특별법안 일부 보호출산제 부결을 촉구했다.

강성희 의원은 보호출산제와 관련 “장애아동의 유기를 조장할 수 있고 미성년자나 장애 여성의 재생산권·자기결정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라고 우려를 표하며 “보호출산제는 누구도 보호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끝으로 “힘신과 출산 그리고 양육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발생하는 갈등에 대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먼저라며 보호출산제 반대에 대한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김재훈 기자